ESG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 현황

※ '21.7월 발표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발표한 'ESG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회사에 관한 규제' 정책 제안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리

조사국제부 김한조 차장

주요 내용

1 최근 ESG관련 국제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정책, 성과 등 ESG 관련 사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 국제 감독기구, 회계기준위원회 및 EU 정부, 국제자본시장협회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활발하게 추진중

- IOSCO의 지속가능성TF(STF, '20.2월) 구성과 IFRS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21.11월) 설립, EU 지속가능금융패키지('21.5월), ICMA의 ESG관련 원칙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20.12월) 등 포함

2 ESG등급과 데이터 시장

□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는 전세계 200여개에 이상이며, '21년 현재 $10억 규모의 시장으로 '25년까지 두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에 대한 ESG규제 의무가 확대되는 측면과 투자자들의 ESG관련 금융상품과 위험대비에 대한 수요증가 측면에 기인

□ 글로벌 ESG등급/데이터시장은 소수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흡수합병(자회사 형태로 유지)을 통해 서비스 영역 확대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ESG등급데이터 회사들은 특화하거나,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경쟁력 확보 노력

- 신용ESG등급/데이터 제품은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데이터소스와 산출 방법은 다양

3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ESG등급/데이터 회사가 활용하는 기초데이터의 범위는 매우 폭넓을 수 있으며, 데이터 퀄리티와 신뢰성이 중요

ㅇ 현재까지 ESG관련 일부 지역에서만 공시요건이 도입되어, 데이터 유효성, 일관성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

- 보수체계도 "발행인 부담"아닌 대부분 "구독료"모델(약85% 이상)로 정보의 질보다는 양이 우선 시될 우려

□ ESG등급/데이터 회사들은 기업들과 직접 컨택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

ㅇ 산업별로 활동성, 지역, 규모등을 고려한 특화된 방법론을 적용하며, 최근에는 머신러닝이나 AI기술 활용도 증가

- 기업 실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목적과 방법론의 차이로 데이터회사들간 등급/제품의 벤치마킹은 크게 없는 상황

4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사용자

□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공공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등급과 데이터를 활용중이며,

ㅇ ESG등급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높은 관심에도 불구, 아직까지는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투자자들은 ESG등급/데이터 산출방법의 투명성이 부족으로, 등급/데이터 자체보다 데이터회사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

ㅇ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ESG관련 분석을 위한 내부평가등급이 있으나, 중소규모 운용사들은 능력, 비용 등으로 불가한 상황

- ESG 기초데이터 신뢰성과 관련하며, 기업들의 공시 표준화를 통한 개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5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 회사간 소통**은 통상 데이터 수집, 평가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공표 직전단계에서는 제한적**임

ㅇ 기업들은 **설문 대응의 시간 소비, 불명확한 스케줄, 모호한 질문, 데이터 미제공 시 불이익, 공표직전 검토 부족 문제** 등 제기

- **ESG등급/데이터 회사들의 방법론상 투명성, 설명/공시의무 강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문양식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6 IOSCO의 권고사항

□ IOSCO는 ESG등급/데이터 시장내 기업, 정보제공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10가지 권고사항을 제시**

* ESG등급/데이터회사의 데이터 퀄리티 유지, 신의성실 의무, 투명성 제고, 기밀유지와 이해상충방지, 피평가회사들과의 데이터 수집절차 등 권고 (p.27, 참고)

7 시사점

□ 국내 ESG등급/데이터 산업도 초기단계로 **기업에 대한 평가 회사간의 차이와 국내/해외기관과의 큰 등급 격차 발생**

→ **ESG등급/데이터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법, 규정 등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자료의 일관성과 방법론상의 투명성 제고 필요**

□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정보벤더**들의 흡수합병을 통한 **시장 영향력을 확대**로 **데이터 의존도 확대와 비용 상승 우려**

→ 중소규모 운용사의 **데이터 외부 의존도 완화와 비용 상승에 대비, 업계내 ESG관련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인프라 마련 필요**

□ **ESG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추세**이며, 국내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에도 **국제기준에 맞는 원칙/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금융투자업계내 **ESG관련 가이드라인 및 원칙 제정 시 ICMA, ICSA 등 국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목 차

<주요 내용> ····· 1

Ⅰ. 최근 ESG 관련 국제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 5

Ⅱ. ESG등급과 데이터 시장 ····· 7

1. ESG등급 및 데이터 산업의 최신 트렌드 ····· 8

2. ESG 등급과 데이터의 커버리지와 관련 규제 ····· 12

Ⅲ.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14

1. ESG데이터에 관한 사항 ····· 14

2. 업계에서 활용중인 방법론 ····· 16

3. 실사(Due Dilligence) 및 업체간 벤치마킹 ····· 18

Ⅳ.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사용자 ····· 19

1. ESG등급과 데이터의 사용 목적 ····· 19

2. ESG등급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 20

3. ESG등급 내부평가 VS 외부평가 ····· 21

Ⅴ.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22

Ⅵ. IOSCO의 권고사항 ····· 25

1. 사전검토 ····· 25

2. IOSCO 권고사항 ····· 27

Ⅶ. 시사점 ····· 29

Ⅰ. 최근 ESG 관련 국제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정책, 성과 등 ESG 관련 사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활발하게 추진중**

□ **(IOSCO 실무위원회 구성)**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향후 **ESG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 TF※(STF)를 구성**('20.2월)

※ **Sustainable Finance TF**: (i) 지속가능성 관련 발행인과 자산운용사의 공시 개선, (ii) 타 국제 단체와의 협력 강화, (iii) 지속가능금융의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 관련 이슈의 분석 및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함

○ 지속가능금융 TF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분야**를 **큰 업무 방향(Workstream)으로 추진중이며, '21년 상반기 관련 보고서 발표**

① WS1: **발행인**의 지속가능성-연계(Sustainability-related) 공시

② WS2: **자산운용사**의 지속가능성-연계 관행, 정책, 처리절차, 공시

③ WS3: **ESG 등급 및 데이터 공급자**에 관한 사항

□ **(IFRS 위원회 설립)** 국제회계기준재단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정보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추진**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IFRS내 기존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함께 두 개의 기준제정기구로 역할 예정

○ IFRS재단은 지난해 **전세계 시장관계자들의 의견 조회**('20.9월)를 통해 **ISSB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 및 실무위원회 구성**('21.4월)

- '21.11월 UN기후회의(COP26,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ISSB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ESG관련 기준을 '22년 상반기중 최초로 발표** 예정

< ISSB 설립 및 기준제정 관련 재단의 전략적 방향성 >

① 투자자에 중요한 정보에 초점(기업가치 중심) ② 지속가능성 범주 중 기후관련 우선 ③ 기존 개념체계 활용 ④ 빌딩블록(building-block) 접근방식* 채택 * 투자자 중심(블럭1)과 다양한 관계자 중심(블럭2) 영역을 나누어 접근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자료 참고

□ **(EU 지속가능금융 패키지)** 유럽위원회는 **자금들이 지속가능 활동에 더욱 유입**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금융패키지를 발표**('21.4월)

① **EU 분류체계(Taxonomy)의 기후 관련 시행령(Delegated Act) 제정**

②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보고 지침*(CSRD) 제정**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SRD)을 확대한 지침으로, 공시 수준과 대상기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

③ **신의성실의무, 투자 및 보험 자문 등에 관한 6개의 시행령 개정***

* 공모펀드(UCITs), 사모대체펀드(AIFM) 관련 규정 등 포함

□ **(ICMA 원칙 제정)** 국제자본시장협회는 기존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성본드에 대한 원칙 업데이트**와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 이번 원칙 업데이트에는 **1) 채권의 관리체계(Framework) 마련과 2) 외부 검토(External Review)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추가

- 올해 **기후전환금융 핸드북, 임팩트 보고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외부 검토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발표

※ **(조사배경)** 최근 ESG관련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논의중인 기업 공시, 자산운용사 업무체계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ESG 등급평가 및 데이터 제공회사에 관한 주요 이슈와 IOSCO의 권고사항을 소개

II. ESG등급과 데이터 시장

※ 전세계적으로 ESG 등급과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 시에 해당 회사의 과거 이력이나 ESG관련 성과 등을 제공하는 ESG등급/데이터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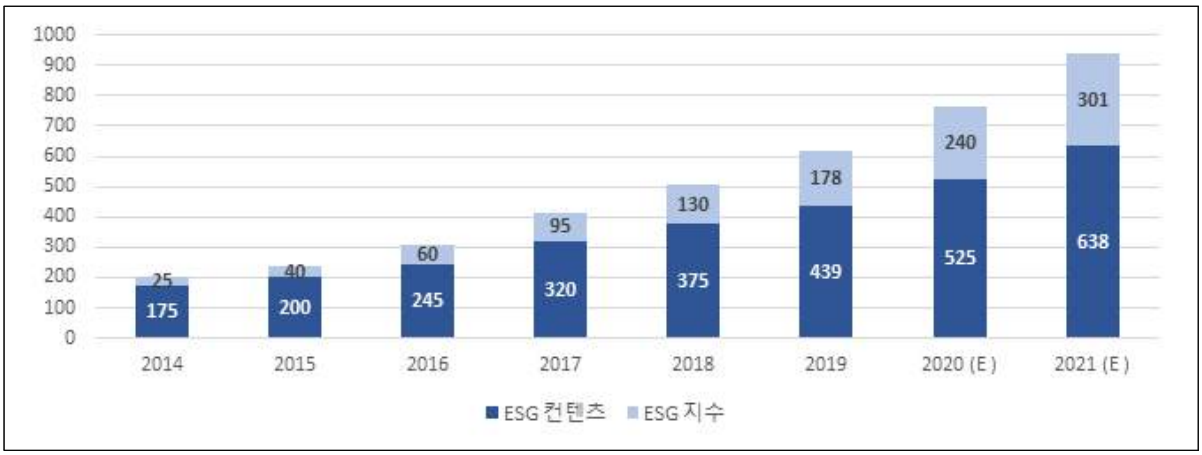
□ **(개요)** KPMG의 조사에 따르면 **ESG등급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세계적으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을 포함 160여개**에 이르며,

○ 유럽내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ESG평가기관과 데이터 공급자 30~40여개 정도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확인*

* EC, 『Study on Sustainability-Related Ratings, Data and Research』, '21.1월 참조

- 신용평가사나 거래소와 같은 시장 인프라기관의 참여 확대로 **'21년 현재 $10억 규모의 시장이 형성** 되었으며, **'25년까지 두배 성장** 예상

【 최근 ESG데이터 시장규모 추이(단위: 백만달러) 】



자료: Optimas ESG(ESG Data Market: No Stopping Its Rise Now, '21.3월) 참고

□ **(급격한 성장 배경)** ESG등급/데이터 시장의 빠른 성장 배경에는 **규제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ESG관련 공시 의무 확대**와 함께

○ **투자자들의 친환경적이고 기후 변화로부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음

- **ESG관련 공시의무와 금융상품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ESG데이터 상품의 금융시장내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1. ESG등급 및 데이터 산업의 최신 트렌드

① 글로벌 정보제공회사의 흡수합병

□ **글로벌 ESG등급과 데이터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존재**

○ 규모와 인프라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글로벌 신평사와 거래소, 데이터/지수 제공기관들이 흡수합병**을 통해 서비스 영역 확대

- **피인수회사**에 대해서는 완전 합병의 형태보다 **자회사 형태로 기존의 회사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 최근 ESG등급 및 데이터 시장내 합병 사례 >

년도	피합병회사	인수회사
2016	Trucost(영국)	S&P 글로벌(미국)
2017	Sustainalytics(네델란드)-지분 40% 취득	모닝스타(미국)
	South Pole(스위스)-투자 기후데이터 부문	ISS(미국)
2018	Solaron(인도)	Sustainalytics(네델란드)
	Oekom(독일)	ISS(미국) ('20년 Deutsche Börse그룹에 인수)
2019	Vigeo-Eiris(프랑스)	무디스(미국)
	Beyond Rating(프랑스)	런던거래소(영국)
	Four Twenty Seven(미국)	무디스(미국)
	GES International(스웨덴)	Sustainalytics(네델란드)
	Carbon Delta(스위스)	MSCI(US)
	SynTao Green Finance(중국)-지분 일부	무디스(미국)
	Ethical Corp(미국)	S&P 글로벌(미국)
	Robecosam AG(스위스)	S&P 글로벌(미국)
2020	Sustainalytics(네델란드)	모닝스타(미국)

자료: IOSCO보고서

□ **중소 ESG등급/데이터 회사**들은 **기후, 우려사안***(Controversies) **등 특정데이터에 특화**되거나 **인증, 컨설팅 서비스** 등에 집중

*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사회적 행동이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제품 스캔들로 인해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

○ 최근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회사**들도 많으며, **AI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② ESG 등급과 데이터 제품

□ 사용자들의 여러가지 **사용 목적과 각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출현

○ ESG 등급/데이터 제품은 **투자자들의 트렌드에 맞추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환경 분야의 데이터 수요 확대**

□ **(ESG등급)**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같지만, 데이터 소스와 산출방법은 다름**

※ "ESG등급"의 의미는 ESG점수와 랭킹 등 지속가능금융에서 넓은 스펙트럼의 등급 상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동종업계(peer group)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

○ **ESG점수는 통상 계량적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반면, **ESG 등급은 정성적 부분이 결합**되어 통상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와 함께 제공**

□ **(ESG데이터 제품)** ESG데이터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제공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① **기초 자료**(Raw Data): 회사 공시정보 또는 공개 정보, 설문 정보 등을 통해 데이터 제공회사들이 수집하거나 유추한 정보

② **스크리닝 도구**(tool): ESG 요건에 기초하여 포트폴리오내 회사나 지역, 채권 등의 ESG 위험 노출 정도를 평가하는 수단

③ **우려사안**(Controversies)**에 대한 알림**: 회사의 평판 위험이나 회사 또는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사례 등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④ **기타 ESG 상품과 서비스**: ESG지수, 포트폴리오 분석 및 컨설팅, 전략개발, 인증, 외부검토, 보고의무 지원, ESG등급개선 자문

별첨 1 데이터 제공회사가 공급중인 등급 및 데이터(샘플 1)

1	**우려가 될 만한 행위(Controversy Activity) 스크리닝**: 회사에서 우려가 될 만한 17개의 행위에 대한 수준을 평가
2	**우려가 될 만한 무기(Controversial Weapons) 스크리닝**: 10가지 타입의 우려가 될 만한 무기에 회사가 관여되어 있는지 평가
3	**우려사항에 대한 위험(Controversy Risk) 평가**: ESG와 기후 관련 우려사항에 대한 회사의 위험 노출 정도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4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Sustainable goods and services) 평가**: 회사 레벨에서 90+가지의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는 넓은 범위의 ESG와 지속가능성 요인들을 포함
5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에 대한 평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영업 행위가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기여하는 수준을 평가
6	**UN 글로벌 컴팩트에 대한 평가**: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제정한 ESG 책임에 대한 관리 능력에 대한 규범적인 평가
7	**기업의 ESG 평가 및 스코어**: 국제기준에 의해 정의된 ESG 요소의 관리 능력에 대한 점수화. 공개된 정보로 평가한 28개 ESG 핵심동력(drivers),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전체 ESG 점수
8	**국가의 ESG 평가 및 스코어**: ESG에 관한 국가 공공기관의 성과를 172개의 ESG 위험과 성과지표로 점수화
9	**지속가능성 등급**: 이중 중용성(double materiality)하에 성과를 고려한 회사의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분석. 지속가능성 등급은 회사의 ESG요소에 대한 위험 노출과 관리 영향 (긍정적인) 등을 포함
10	**ESG 벤치마크 분석**: ESG 평가 랭킹과 모범사례 등을 포함하여 동종업계와 회사 비교 분석
11	기업들의 물리적인 기후 위험 점수: 홍수, 폭염, 허리케인, 태풍, 해수면 상승, 물부족, 산불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자산 레벨의 데이터
12	**국가의 기후 위험 점수**: 각 국가별 전체 기후 위험에 대한 점수와 농업, 인구, GDP (구매력기준)에 노출된 비중
13	**회사의 전환 위험 점수** - 회사의 이익, 보유량, 잠재적인 배출량, 발전량 등을 포함, 회사의 화석 연료에 대한 비친환경적인 노출 비중 -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 회사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가 기온 경로에 따라 어떻게 맞추어지는지에 대한 기온 맞춤 노력에 대한 평가
14	**에너지 전환 점수**: 회사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상황 측정
15	**물리적 위험 관리**: 회사가 물리적 위험을 어떻게 예상하고, 방지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해 입증
16	**TCDF 기후 전략**: 회사가 TCDF의 권고사항에 맞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
17	**국가의 전환 위험**: 생산 기반의 전체적인 탄소 배출과 농도(GDP당 배출)를 포함한 국가별 배출량 측정
18	**일별 모니터링과 알림**: 8000여개 회사에 대해 38개 항목의 ESG기준과 160+ 주제에 대한 ESG 관련 사건 일별 모니터링

별첨 2 데이터 제공회사가 공급중인 등급 및 데이터(샘플 2)

1	**탄소 위험 등급평가**: 회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과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대응하는 지에 대해 대부분 산업에 특화된 100+개의 탄소 성과 지표로 평가
2	**기후 솔루션**: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해, 측정, 행동 및 전 자산 유형에 걸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지원. ESG의 분석은 회사의 그린하우스 가스("GHG")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최우선으로 기초하여 분석
3	**우려가 될 만한 무기(Controversial Weapons) 스크리닝**: 투자자들이 생물, 화학, 핵, 대인지뢰, 집속탄 등을 포함한 우려가 될 만한 무기를 개발, 생산, 관리하는 회사에 직, 간접적인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지원
4	**에너지와 관련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 회사의 화석연료 추출과 화석, 핵, 신재생 등 에너지 생산 활동에 대해 평가
5	**환경(E)와 사회적책임(S)에 대한 정성적 평가**: 회사의 환경과 사회책임 및 지배구조 관련 데이터 주도의 점수평가와 스크리닝 방법과 함께 공시 사례에 대한 확인 및 측정
6	**글로벌 제재에 대한 스크리닝**: UN, 미국 또는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거나 관심 지역에 대한 회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평가
7	**척도(Norm) 기반의 조사**: 인권, 노동기준, 환경보호, 반부패 등 UN 글로벌 콤팩트와 OECD가이드라인이 설정한 국제적인 척도를 준수하여 회사를 평가
8	**공동참여**: UN 글로벌 콤팩트의 척도기반 리서치를 통해 확인된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4가지의 척도 항목에 대한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뢰할만한 진술이 확인된 경우 해당 회사와의 대화 또는 공동참여 서비스 제공. 공동참여는 회사와 관계자들과 대화를 지속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공
9	**섹터 기반 스크리닝**: 알코올, 동물복지, 대마초, 영리목적의 구치소, 도박, 포르노 그래피, 담배 등과 같은 산업이나 제품에 회사가 관여한 정도를 평가
10	**SDG솔루션 평가**: UN 지속개발가능목표(SDGs)상 회사의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의 긍적적, 부정적 영향을 여부를 결정
11	**ESG 지수 솔루션**: 투자자들이 우수한 ESG성과를 보이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확인, 벤치마크, 추적할수 있도록 하고, 지수 전략을 구현. ESG 지수 솔루현은 턴키방식의 지수 솔루션과 고객 맞춤 지수 솔루션을 제공
12	**사이버 위험**: 투자자, 보험회사, 회사들이 회사의 사이버 위험 관리 프로그램을 정확히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중하게 벤치마크 할 수 있도록 지원
13	**EU 분류체계(Taxonomy) 연계 솔루션**: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회사, 은행, 기타 투자자들이 EU 분류체계상 정의된 활동과 그들의 투자 및 금융상품의 연계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공시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수익을 계량화할 수 있도록 지원
14	**지역 등급평가**: 모든 EU, OECD, BRICS 지역과 아시아, 남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15	**ESG회사 등급평가**: 현재와 미래에 회사가 한편으로 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ESG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적절하게 관리하고 다른한편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전환에 딸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어느 수준까지 자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16	**SDG 영향 등급평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생산, 서비스, 운영관리와 우려사항 등 3가지 영역에서 회사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결정

2. ESG 등급과 데이터의 커버리지와 관련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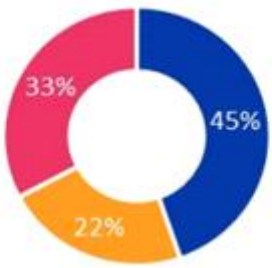
□ **(ESG등급 커버리지)** 비상장회사들을 커버하는 일부 ESG등급/데이터 회사들도 있으나, **상장기업 등급/데이터 비중이 훨씬 높음**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1

ESG등급/데이터 커버리지는 시장의 발전정도에 따라 차이
개별 ESG점수 항목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잘 발달될 시장에서는 데이터 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항목들을 포함
비상장회사에 대한 데이터 항목들은 상장회사에 비해 非체계적
비상장회사 투자는 새로운 영역으로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에 비해 ESG공시의무 규제를 덜 받는 것이 주된 이유

○ 지역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법과 규제가 요구되는 유럽과 미국 비중이 높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미국 ESG평가 등급 제공회사의 지역별 커버리지>

제품 샘플	지역별 분포
탄소위험 등급 (Carbon Risk Ratings)	
ESG회사 등급 (ESG Corporate Ratings)	
SDG임팩트 등급과 SDG솔루션 평가 (SDG Impact Ratings and SDG Solutions Assessment)	
	

□ **(ESG데이터 커버리지)** 업계 확인 결과 **ESG등급/데이터 회사별로 인기있는 데이터들이 차이**가 존재

○ 이는 ESG등급/데이터 시장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고객의 요구와 제공회사 데이터간의 불균형**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음

< 데이터 제공회사별 활용도가 높은 5가지 제품 >

데이터 제공회사 샘플1	데이터 제공회사 샘플2
- ESG 점수 - 일별 모니터링과 알림서비스 - 기업의 물리적인 기후 위험 점수 - 회사의 전환 위험 점수 - 우려가 될 만한 활동에 대한 스크리닝	- 섹터기반 스크리닝 - 기업 및 국가 관련 리서치 - ESG 기업 등급평가 - 우려가 될 만한 무기 리서치 - 기후 솔루션

□ **(지역별, 기관규모별 차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있으며, **유럽내에서도 국가별로 차이** 존재

○ 기관규모별로는 **소형기관들이 플랫폼을 통한 ESG점수 정보를 선호하는 반면, 대형기관들은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호**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2

지역별 많이 활용되는 상품
유럽: 규범기반(Norm-based) 리서치*와 ESG 기업 등급 * 규범기반리서치(NBR): 포트폴리오에 속한 각각의 기업들이 환경과 인권, 노동, 반부패 등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잘 준수하는지를 여부에 관한 조사 아시아: 기후 관련 데이터 미국: 기초자료(Raw data), 섹터기반 스크리닝, 우려가 될만한 무기 등
유럽 지역내에서 국가별 선호도의 차이
스크리닝 접근법*: 북유럽 국가들, 네델란드, 독일에서 선호 * 투자자의 선호, 윤리적 가치에 기반 필터링을 통해 투자대상 선정

□ **(관련 공시와 규제) ESG 등급/데이터의 공시는 체계적이지 않으며, 비영리기관들의 경우가 공시에 더 적극적**임

○ **데이터회사에 대한 보수 모델(Remuneration Model)에 따라 다양**하며, 일부 데이터회사들은 수수료 없이 웹사이트에 기업의 ESG등급을 공표

- **ESG등급과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적규제 범위 밖**에 있으며, **행위 규범 등을 통한 자율규제 정도가 존재**

→ 자본시장 규제기관, 업권협회, 데이터 제공자들 스스로도 관련 시장규제를 요구하는 상황

III.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이 장에서는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들의 실제 사례와 경험, 데이터 소스와 등급/데이터 산출을 위해 방법들을 알아보고, 향후 과제를 확인

1. ESG 데이터에 관한 사항

① 기초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

□ **(ESG 기초데이터)** 데이터 제공회사가 활용하는 기초데이터의 범위는 매우 폭넓을 수 있으며, 많게는 **수천가지의 데이터를 활용**

○ 여기에는 **회사의 지배구조, 재무전략, 관리 전문성, 기후위험에 대한 물리적 위험, 전환 위험 등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포함

- ESG 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제공회사들에게 **데이터 퀄리티 유지는 데이터 등급과 제품의 핵심 요소**

□ **(데이터 퀄리티상 문제점)** ESG관련된 **공시요건**이 일부 지역에서 도입되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상당히 초기 단계**로,

○ 데이터 **유효성이나, 일관성, ESG관련 목표에 대한 불명확성, 핵심성과지표(KPI)의 일관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3

여러가지 요소들이 제한된 ESG 데이터의 수집
ESG 정보의 부족 특정 지역이나 자산 유형에 대해 전체적인 ESG와 기후관련 정보(정량적, 정성적)가 부족하며, 특히, 이머징이나,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ESG 보고의 파편화** ESG데이터와 기후 정보가 여러 보고서(사업보고서, CSR 보고서, 웹사이트, '심층 보고서(deep dives)' 등)에 흩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임 **목표를 위한 정보 지원 관련 이슈** ESG나 기후관련 이슈에 목표가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며 이 목표에 대한 진행사항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 **핵심성과지표(KPI)의 일관성 결여** KPI가 제공되는 경우 이전의 수치들에 대한 재인용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으며, 시계열 데이터가 항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데이터의 영역도 명확하지 않음

→ IOSCO는 국제적인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IFRS재단내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감사(audit)와 확인(assurance) 체계의 표준화를 통해 많은 이슈들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

② 보수체계: "발행인 부담" vs "구독료" 모델

□ **(수수료 구조)** 현재 ESG등급과 데이터에 관한 **수수료 구조는 대부분 "구독료" 모델**로 **전체 수입에서 85%이상의 비중 차지**

○ **ESG등급에 집중하는 일부 회사들이 "발행인 부담" 모델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규제에 따라 **"발행인 부담"** 모델 증가 가능

□ **(수수료 구조상 문제점)** **"구독료"모델**은 **여러 제품을 구독 시 비용부담 증가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제품을 구독 시 **제공회사의 데이터 산출 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게 됨

- "구독료"모델은 ESG등급/데이터의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에서 **정보의 질보다는 양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ESG 등급 제공회사가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ESG 점수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소규모 투자자들도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ESG 등급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됨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4

데이터 수수료에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
ESG 데이터 수수료 모델은 압도적으로 "구독료" 모델 ESG 리서치나 등급에 대해 발행인이 부담 구조가 아니며, 통상 발행기업들은 업계내 다른 회사들의 ESG사례에 대해 벤치마크 하기위해 구독료 지불 **향후 수수료 모델 변동 가능** 최근 몇 년간 구독료와 발행인 부담이 혼합된 구조가 정착되어오고 있으며, 향후 규제 방향에 따라 현행 신용평가 수수료와 같은 방식으로 변동될 수도 있음

2. 업계에서 활용중인 방법론

□ **(기업들과의 소통)** ESG는 수집해야할 자료의 범위가 넓어 **업계에서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해당 회사와 직접 컨택**

ㅇ 데이터 제공회사들마다 소통의 성격과 빈도는 다르며, 데이터수집 **마지막 단계에서 만나거나, 수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

□ **(데이터 처리방법의 다양성)** OECD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 회사들이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활용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음

* OECD, 『ESG Investing: Practices, Progress and Challenges』(2020)

① **데이터 수집**:

- 공개된 정보, 미디어, 비정부조직, 기업 등에서 발표한 자료 수집
- 설문지를 해당회사에 직접 송부
- 다른기관의 자료 구독이나 파트너쉽을 통해 수집

② **데이터 가공**: 활용과 추정이 가능하도록 합계 등 형태로 가공

③ **데이터 인증과 업데이트 절차**:

-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완하거나, 해당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
- 정보가 부족한 경우 업계 평균이 활용되며, 공시가 없는 기업들은 성과가 좋지 못할 가능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④ **정성적 VS 정량적 데이터 비중**: 해당 회사의 애널리스트 수와 역할, 비즈니스 모델, 제공되는 제품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짐

⑤ **방법론에 대한 리뷰**:

- 데이터 측정 단위(Data Point)별, 지표별, 핵심성과지표(KPI)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많게는 수백, 수천가지)

- ESG점수와 등급, 가중치 적용, E/S/G 항목별, 하위 항목 별 적용되는 방법들도 다양, 방법들에 대한 리뷰는 통상 1년에 한번 실시

⑥ **최종 등급 평가**:

- 등급은 성과와 위험, 중요성에 대한 다른 접근법 등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 어떤 평가기관은 회사가 ESG 위험에 노출된 정도로 등급을 평가하는 반면, ESG요인에 대한 영향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 **(산업별 방법 차별화)** ESG등급이나 데이터 산출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보다 **산업별 특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ㅇ 수집된 ESG등급/데이터의 평가 메트릭스에서 **개별 산업 섹터에 대해 산업의 활동성,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

- ESG 항목 중 **G(지배구조)영역에서는 조금더 합의된 형태의 메트릭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S(사회)와 E(환경)의 영역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데이터 수집기술의 진화)** 최근에는 기초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머신러닝이나 AI기술을 활용**하기도 함

ㅇ 다만, 머신러닝이나 AI기술의 활용은 매우 초기단계이며, 최근 **자연어 처리기술(NLP)이 이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3. 실사(Due Dilligence) 및 업체간 벤치마킹

□ **(Due Dilligence 사례)** ESG 등급/데이터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

○ 데이터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가능 여부 조사와 데이터 불일치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

* 스크리닝 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회사와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

- 통계적/논리적 확인절차를 통해 **비정상 데이터나 극단치(outlier)를 제거하고 다른 비교군과의 차이 등을 검토**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5

기업실사(Due Dilligence) 대한 시장참가자 의견
회사에서 공시한 정보들은 애널리스트들에 의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문서상의 데이터의 진위여부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은,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서 활용되며, 그 차체로 ESG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의 일관성 결여는 일관성이 결여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스크리닝하며, 회사의 지속가능성이나 ESG보고의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받은 해당 항목(예,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한해서 평가됨 기후 데이터(보고된 배출량)의 경우도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정치로 대체

□ **(타업체 벤치마킹)** 데이터 제공회사들은 **타 업체의 등급이나 제품을 벤치마킹 하거나 사용중인 방법을 경쟁사와 비교하지는 않고 있음**

○ 이는 시장에 공통된 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 **다양한 분석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나,

- **방법론이나 제품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공시되지 않으며, 측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례가 없을 수도 있음

Ⅳ.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사용자

※ IOSCO는 투자자입장에서 ESG 등급과 데이터 활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등 민간기관과 연기금, 중앙은행, 정부소유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1. ESG 등급과 데이터의 사용 목적

□ **(ESG등급의 사용)** ESG등급의 **사용목적은 기관별로 다양**하나, **대부분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ESG등급을 포함**한다고 응답

○ ESG등급을 **투자절차상 ESG요소로 포함**하거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익스포져 유지, 투자기회 모색,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위해 활용

- 자산운용사의 **고객 대상 ESG보고를 위해 등급 정보가 활용**되며, 기관들이 **외부 운용회사 ESG 익스포져 등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사용

□ **(ESG데이터의 사용)** 조사대상 기관들은 **ESG등급보다 ESG데이터 제품을 더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 **네거티브 스크리닝 등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의 관리, 연계 상품 개발, 보고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사용

- 특정회사의 경우 **파리 기후협약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위해 환경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응답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6

ESG등급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	
ESG 등급	**ESG 데이터 제품**
- 지속가능성 연계 위험과 기회 관리 - 지속가능성 상품 디자인과 파악 - 투자회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 가이드 - 회사의 지속가능성 추진방안 가이드 - 고객에 대한 보고 - 외부 위탁운용사들에 대한 ESG나 기후 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평가	- 지속가능성 연계 위험과 기회 관리 - CSR정책에 대한 준수 - 네거티브 스크리닝 - 지속가능성 투자 상품의 권유 - 규제에 따른 보고요건 충족 - 환경 영향 분석

2. ESG등급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

□ **(신뢰성 검증절차 미비)** 투자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ESG등급/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은 상황**이나,

○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모두 **ESG등급의 기초데이터나 데이터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절차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자료가 내부 분석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로 실사나 검증절차**를 한다고 답변

□ **(방법상의 투명성 결여)** IOSCO의 사실확인 결과, ESG등급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며,

○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초 데이터의 영역, 중요성의 정의, 데이터 수집 타이밍, 리뷰의 빈도, 업데이트 등 방법상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

- ESG등급이나 **데이터 제품의 기준과 방법은 데이터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어, 데이터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데이터 회사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응답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7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접근법	
제공회사와 계약 전	**제공회사와 계약 후**
- 데이터 퀄리티 조정 과정 확인 - 사무실 방문 또는 Q&A를 통해 제공회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확인	- 데이터 오류나 비정상데이터 확인시 데이터 소스에 대한 확인 - 데이터 제품이 대상 업체의 현재 상황을 어느정도 까지 확인하는 수준에서 데이터 결함발생시 제공회사에 면담 - ESG등급 결과에 대한 확인, 추가정보 요청

→ ESG 기초 데이터 신뢰성과 관련 <u>**기관투자자들은 기업들의 공시 표준화를 통한 개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u>

3. ESG등급 내부평가 VS 외부평가

□ **(내부평가 활용)** 대부분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ESG 관련 분석과 투자절차상 일부분으로 ESG등급의 내부평가 방법을 활용**

○ 내부평가를 활용하게 된 주요 원인은 **외부 ESG 평가의 투명성 부족과 방법론상 내부 전략과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응답

-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외부 ESG등급이나 방법론의 사용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내부 평가시스템)** 대부분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전략이나 철학에 맞는 내부적인 ESG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

○ **조건에 맞는 투자대상 섹터를 확인**하거나,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한 포트폴리오내 회사들의 성과 분석**을 위해 활용※

※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방법론을 직접 개발하거나, 등급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ESG등급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외부 기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함

□ **(외부평가에 대한 벤치마킹)** 내부 평가등급을 개발한 자산운용사들은 **방법론상의 차이로 외부 평가를 벤치마킹하지 않는다**고 응답

○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외부평가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능력을 더 갖추거나 개발하는 기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

- 하지만, **중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은 ESG내부 등급 평가가 자체 능력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용상의 부담**이 있다고 응답

Ⅴ.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

※ ESG등급과 데이터 제공회사들이 평가회사들에 대해 어떻게 관여하는지와 이들 제공회사들이 특정 데이터를 찾는 경우나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평가대상 회사들의 맞이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알아봄

□ **(기업들과의 소통)** ESG등급과 데이터 제공회사들은 평가 대상 회사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통상 다음의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짐

(1) **데이터 수집단계**: 회사에 ESG등급산정 및 데이터 제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2) **데이터 평가단계**: ESG등급/데이터 제공회사들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를 활용, 등급이나 데이터를 산출

(3) **데이터 공표직전의 단계**: 결과물을 회사에게 알려주거나 회사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피평가기업들의 어려움)** **양측간 소통은 대부분 데이터 수집과 평가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피평가회사들이 겪는 ESG등급/데이터회사와의 소통 과정상 어려움은 다음과 같음

1. 데이터 수집단계: 많은 시간 소비(Time Consuming)

○ **(과도한 시간 소비)**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의 **데이터 수집 양이나 빈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의견

- 특히, 회사의 **여력이 제한이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요청을 받을 경우 응답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

○ **(요청의 타이밍)**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의 스케줄에 맞춰 자료를 요청**하므로 **기업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

- 피평가회사들은 **데이터회사들에 의해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데이터 항목**과 **사전에 예측가능한 스케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질문의 모호함)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이 있을 만한 질문들이 포함**되거나, **충분한 설명, 이유없이 추가 응답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제**공회사의 분석인력이 자주 바뀌며, 그 인력들을 매번 빠르게 육성하려는 것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

2. 데이터 평가: 평가방법의 투명성(Transparency) 결여

○ **(평가 방법의 투명성)** 기업들은 **ESG 등급/데이터 회사의 참여 정도나 투명성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강조

-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의 **결과물 도출 방법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관리절차 수정내용※ 등을 알 수가 없음**

※ ESG등급평가와 데이터 제공회사들이 사전 공시나 예고 없이 방법론을 바꾸는 경우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

→ 많은 응답자들이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투명성 및 설명/공시 의무 강화를 요구**

○ **(평가 결과상 문제점)** 기업들은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실패 등급'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이 **제공받지 못한 데이터가 평가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

→ 기업들은 **설문 양식에 데이터 제공이 불가한 이유나 특정 데이터가 불가하다는 사항을 표시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8

데이터 평가시 소통에 관한 기업들의 견해
- 등급이나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의 방법론이나 조건의 투명성 결여 - 결과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 - 순위나 결과에 대한 해석 부족 - 최종 평가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 부족 - 등급 또는 데이터 제품 방법론 변경에 대한 공지 또는 통지가 없음

3. 데이터 공표 직전: 공표 직전에 검토(Review)할 기회 부족

○ **(소통 인센티브 부족)** 응답자의들은 결과물 **공표직전 단계에서 기업과 ESG등급/데이터회사간 소통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

※ 현재의 '구독료'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ESG등급/데이터들은 투자자들에 비해 피평가회사들과 소통할 인센티브가 없음

- 일부 **기업들은 보고서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용을 낼 것을 요청받은 적도 있으며, 이 과정 역시 데이터 공표이후에 있었다**고 지적

○ **(최종 검토기회 부족)** 피평가업들은 공표직전 단계에서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최종결과물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하여

- 최종결과물상에서 **데이터 오류와 누락 발생시 이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

→ <u>ESG등급/데이터는 회사보다 투자자들이 먼저 제공받게 되는 것은 피평가회사에게 잠재적인 평판 위험을 야기하며,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u>고 우려 표명

※ IOSCO에서 확인한 **업계 사례**(Fact-Findings) 9

공지 직전 단계의 소통에 대한 기업들의 견해
- 최종보고서를 비용 부담없이 얻는 확률이 낮으며, 코멘트나 수정이 어려움 -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기회 부족 - 리뷰하기에 부족한 데드라인 - 최종보고서 공시 이후 수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음 - 공지 직전에 리뷰가 없었던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투자결정의 위험

□ **(잠재적인 이해상충)**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이 투자자뿐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 **포트폴리오 분석, 컨설팅, 인증이나 외부검토 의견 등의 서비스를 평가와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잠재적인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음

Ⅵ. IOSCO의 권고 사항(Recommendations)

※ IOSCO가 시장관계자들의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ESG등급/데이터제공회사 자체의 내부절차, 데이터의 사용과 사용자를 위한 권고사항부터 피평가회사와 제공회사의 소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에 대한 작업을 진행

1. 사전 검토

□ **(사전 조사)** IOSCO는 권고사항을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먼저 조사

(i) ESG 등급/데이터 제품시장의 빠른 성장이 **투자자 보호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

(ii) ESG 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에 대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 기준이나 가이던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iii) 이 분야에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IOSCO의 역할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 **(ESG등급/데이터회사 의견)**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기업공시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응답

○ 기업들은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대표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드는데 도움

○ 기업들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핵심성과지표(KPIs)의 일관성을 위해 **과거 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시계열자료를 제공 시** 도움

○ 기업들이 **ESG에 관한 공시를 언제, 어디에 하는지 공표**하면, ESG등급/데이터회사의 데이터 검토 주기와 일치 가능

○ 기업들과 **ESG등급/데이터회사간 검토 시점과 업데이트 등에 관한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면 데이터 오류나 누락을 방지

□ **(IOSCO의 사전검토 의견)** IOSCO는 사실확인 절차에 기초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

○ 기초데이터의 신뢰성: 기초데이터는 ESG등급/데이터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기업공시 개선이 데이터 퀄리티를 강화에 기여**

○ 산정방법의 투명성: **등급/데이터의 산정방법도 데이터 퀄리티에 영향**을 주며,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결과물에 대한 이해나 해석을 어렵게 함

○ ESG등급/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신뢰성은 ESG등급/데이터회사의 사업 모델과 수수료 구조, 이해상충 정책, 데이터 퀄리티 관리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견고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과 관련

○ 잠재적인 이해상충 해소: ESG등급/데이터와 컨설팅 서비스 등 서비스간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파트를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

○ 소통(Communication)에 관한 문제:

(1) **데이터 수집단계**: 설문 타이밍에 관한 투명성 확보와 역사적 데이터와 공개정보 기반의 **기초 설문 준비는 여력이 제한된 기업들을 지원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

※ 기업들은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이 최근 완료한 설문지를 사전에 제출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시간 절약과 데이터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견

(2) **데이터 평가단계**: ESG등급/데이터 산출의 기초가 되는 요인이나 조건들의 투명성은 기업들의 관심사항으로 **등급/데이터 제품의 산출방법 공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오류 수정 과정 필요**

(3) **데이터 공표직전 단계**: ESG등급/데이터회사들은 데이터 공표 직전 피평가기업들의 오류 지적이나 추가 정보제공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

2. IOSCO 권고사항

□ **(개요)** 권고사항들의 적용방식은 시장관계자들의 우선 순위와 지역별 시장환경과 개별 국가의 법, 규제체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이 권고사항들은 **ESG등급/데이터회사, 피평가기업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일 수 있으며

- **규제기관들은 기존의 규제체계와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IOSCO와 IOSCO 회원들을 위한 ESG등급/데이터회사에 대한 권고사항**

권고사항 1:

규제기관은 자국내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사용과 제공회사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할 수 있다.

권고사항 2: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가능하면 공개된 공시정보를 기초로 하고, 필요한 경우 투명하고 잘 정의된 방법론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ESG 등급과 데이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3: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그들의 최선의 지식수준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압력이나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의 조직 구성, 사업활동,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재무적 이익에 기인한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4: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신의성실에 기초하여,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독립성과 목적을 타협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있는 행위, 절차, 관계 등의 피해야 하며,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을 이러한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들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5: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방법론이나 절차를 포함한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의 목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공시와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6: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ESG 등급과 데이터 제품 관련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 회사, 대리인, 들에 대한 모든 비공개 정보에 대해 환경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7: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내부절차상 사용하고 있는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실사에는 무엇에 대해 등급 평정과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용되는 제품의 제약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할 수 있다.

권고사항 8: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제공회사나 피평가회사에게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에 포함되는 피평가기관들에 대한 정보수집절차를 개선하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9: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의 목적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의ESG등급과 데이터 제품이 평가하는 회사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응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고사항 10:

ESG등급과 데이터 제품 제공회사들에 의해 평가받는 회사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시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국내의 규제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Ⅶ. 시사점

□ **(ESG등급/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내에서는 소수의 평가기관*들이 ESG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관련 데이터 산업도 초기단계로,

*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 IOSCO의 사실 확인 결과와 같이 **국내 ESG평가회사간 등급과 E, S, G 분야의 개별 점수간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분석』(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21.5월) 참조

- 또한,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해 **국내 주요기업들에 대한 ESG 평가등급도 해외기관들의 평가등급과 큰 격차 발생**

【 국내 100대기업대상 국내외 ESG등급 평가결과 】

기업명	조정등급*			등급격차			
	MSCI (7단계 등급)	Refinitiv (100점 만점)	KCGS (7단계 등급)	M-R**	M-K**	R-K**	등급격차 평균
현대제철	CCC	AA	BBB	***5단계***	***3단계***	2단계	2.2단계
기아자동차	CCC	A	A	***4단계***	***4단계***	0	
현대자동차	B	AA	A	***4단계***	***3단계***	1단계	
삼성중공업	CCC	A	BBB	***4단계***	***3단계***	1단계	
한국전력공사(주)	BB	AA	A	***3단계***	2단계	1단계	
한국가스공사(주)	BB	AA	A	***3단계***	2단계	1단계	
현대글로비스(주)	BB	AA	A	***3단계***	2단계	1단계	
현대건설(주)	BB	AA	A	***3단계***	2단계	1단계	
두산중공업(주)	BB	AA	A	***3단계***	2단계	1단계	
에쓰-오일(주)	BB	AA	AA	***3단계***	***3단계***	0	
현대모비스(주)	B	BBB	A	2단계	***3단계***	1단계	
롯데쇼핑(주)	B	BBB	A	2단계	***3단계***	1단계	
이마트	B	BB	A	1단계	***3단계***	2단계	
금호석유화학(주)	B	B	A	0	***3단계***	***3단계***	
비지에프리테일	BB	CCC	A	2단계	2단계	***4단계***	
에스원	BB	CCC	BBB	2단계	1단계	***3단계***	
씨제이대한통운(주)	BB	B	A	1단계	2단계	***3단계***	
호텔신라	BB	B	A	1단계	2단계	***3단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BB	B	A	1단계	2단계	***3단계***	
오뚜기	B	CCC	BBB	1단계	2단계	***3단계***	
삼성전자(주)	A	AAA	BBB	2단계	1단계	***3단계***	
엘지전자(주)	A	AAA	BBB	2단계	1단계	***3단계***	

* 등급체계: (MSCI) AAA, AA, A, BBB, BB, B, CCC, (KCGS) S, A+, A, B+, B, C, D,
(Refinitiv) 100점 만점 점수체계를 14점 간격으로 7단계 등급으로 환산

** 약자는 M(MSCI), R(Refinitiv), K(KCGS)로 각 기관 평가등급 간 몇 등급 차이인지를 의미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 **ESG등급/데이터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법, 규정 등 규제체계 마련**의 통해 **자료의 일관성과 방법론상의 투명성 제고** 필요

□ **(ESG평가 규제체계 마련)**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정보벤더들은 ESG 관련 리서치, 평가회사의 **흡수합병을 통해 시장영향력 확대**

○ **글로벌 거래소 통폐합이후 시장데이터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국내 업계에서도 해외거래소의 데이터비용 인상 사례**가 있었음

* 거래소의 시장데이터 수수료는 '08년 이전 연 1%수준 증가한 반면, '08부터 '18년까지 약 10년간 256%수준 증가(ICSA, 『Global memo on the market data cost』, '20.1월)

- 최근 유럽펀드업계는 자산운용사들의 ESG데이터 비용상승, 타서비스와 연계로 인한 이해상충 등을 우려, EU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ESG등급/데이터 관련 **규정 제정을 유럽 정부(EC)에 요구***

* "Asset Managers support call for regulation of ESG data, research and ratings" (EFAMA 보도자료 '20.12월)

→ **ESG관련 데이터 외부 의존도 완화와 비용 상승에 대비, 업계내 ESG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제도와 인프라 마련 필요**

□ **(국제 공조 노력)** ESG관련 정보공시 의무화는 글로벌 추세이며, **지속가능성/기후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있으며,

○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 국제자본시장협회(ICSA)의 지속가능성 채권 원칙*, UN 책임투자원칙(PRI) 등**과 같이, ESG관련 국제 기준 표준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 Green Bond Principles, Social Bond Principles, Sustainability Bond Principles, Sustainability-related Bond Principles

- 국내 기업 및 금융투자업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에 부합한 가이드라인 및 원칙 등이 제정, 도입 필요**

→ 금융투자업계내 ESG관련 가이드라인 및 원칙 제정 시 ICMA, ICSA 등 국제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